

18세기 대구 解西部面의 戶口總數 유지 배경과 그 성격

-해서부면 일대의 호적대장과 『역중일기』 교차 분석을 중심으로-*

이 경 진**

- I. 머리말
- II. 해서부면의 행정적 특성과 호구총수 추이
- III. 『역중일기』 속 해서부면 일대의 ‘인구’ 변동
- IV. 재해기간 分戶 증가와 그 영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18세기 대구 해서부면 일대의 지역적 沿革을 바탕으로 해서부면을 포함한 해동촌면, 해서촌면, 해북촌면 등 4개 행정 면의 호구총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해서촌면에서 1747년, 1762년, 1768년에 戶總이 평균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해당 식년은 모두 해서부면 일대의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로 확인되었다. 즉, 재해기간 해서촌면의 호총이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 해서부면 호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역중일기』와 호적대장의 교차 검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 이 논문은 2022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수료 / applelkj@hanmail.net

한편, 인접한 지역이었던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에서 재해 기간 발생한 호충 추이의 차이는 해당 지역의 戶口 구성에서 비롯되었다. 해서부면의 경우 상층 호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해서촌면은 중층 호의 비율이 높았다. 재해기간 호충 유지를 위하여 일부 호에서 分戶를 통하여 호충을 채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상층 호가 많았던 해서부면에서는 상층에서 분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호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서부면과 그 주변의 행정 면은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面政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대구부 도심의 행정력 분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단위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략 중 하나였다.

◆ 주제어

해서부면, 『역증일기』, 재해기간, 호구총수, 분호

I. 머리말

18세기 大丘府는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상도 일대 행정·군사 중심지였다.¹⁾ 특히, 대구부 東上面과 西上面은 읍치의 성격을 갖는 곳으로 특정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계층 이동양상, 전근대 대도시의 특성 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²⁾

한편, 대구부는 18세기를 기준으로 총 37개의 면을 거느리고 있었다.³⁾ 따라서 대구부 감영과의 근접 거리 및 戶口의 신분·계층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한 위상과 성격을 지닌 행정 면이 존재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주로 대구부 중심부에 주목하였으며, 대구부 소속 행정 면이 어떠한 특성 속에서 존재하였는지 살펴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도시적 특성은 감영 설치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⁴⁾. 즉, 중앙의 행정 및 군사 제반 시설의 집중도가 도시적 성격을 이끌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⁵⁾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심부와 같은 여건이

- 1) 조선시대 대구부의 지역적 특성 및 경상도 내의 위상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만하다. 김성우, 「조선시대 대구 읍세의 팽창 과정」, 『대구사학』 75, 대구사학회, 2004 ; 권기중, 「조선후기 지방지배정책과 인구과약 -『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사람』 40, 수선사학회, 2011 ; 정해은,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경계』 98, 부산경남사학회, 2016 ; 김정운, 「경상감영의 설치와 대구의 변화」, 『한국학논집』 9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 2) 권기중, 「조선시대 호적대장과 족보를 통해 본 사회사의 재조명 18~19세기 감영소재지의 인구구성과 향리층의 존재양상 -경상도 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이유진, 「18세기 대구 호적을 통하여 본 도시지역의 특징 -대구부 서상면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5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1 ; 이동규, 「조선후기 호적상 무임직역의 계승과 변동-대구부 읍치와 외촌에 거주하는 몇몇 가계들을 사례로-」, 『대동문화연구』 8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권기중, 「호적대장을 통해 본 조선후기 노비층의 증감현상-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 김영록,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경상도 邑治의 戶口 구성과 변동-대구·울산·단성 호적대장의 비교」, 『역사와 경계』 96, 부산경남사학회, 2015.
- 3) 18세기 작성된 『大丘府戶籍大帳』 기준 행정 면은 총 37개이다.
- 4) 김정운, 앞의 논문, 2023, 56쪽.
- 5) 김영록, 앞의 논문, 2015, 7쪽.

주변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부 도심 이외의 행정 면이 어떤 전략으로 지역적 위상을 유지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구부 解西部面을 중심으로 도시 주변부의 존립 양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해서부면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첫째 해서부면은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주변부의 성격을 갖는다. 해당 면은 위치적으로 동상면과 서상면을 기준으로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또한 도심 보다는 解東村面, 解西村面, 解北村面 등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도심 주변부가 어떻게 존립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해서부면은 주변부의 존립 양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호적대장』과 일기 자료이다. 요컨대, 호구 파악은 중앙의 국역 수취와 즉결되는 사안으로, 호구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재정 운영과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표였다. 해서부면 일대는 18세기 『호적대장』이 다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面政 분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當代 해서부면 일대의 유력한 실력자였던 경주최씨 문중 최홍원의 『曆中日記』가 남아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호적대장』과 일기 자료의 교차 검증을 통하여 주변부의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대구부 도심의 주변 지역이었던 해서부의 호구 파악을 통하여 주변부의 존재 양상을 파악하고, 주변부로서 안정적인 면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I. 해서부면의 행정적 특성과 호구총수 추이

18세기 대구부는 행정 구획 상 총 37개의 행정 면을 포함하는 대도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오랜 시간 주변의 群小 郡縣이 행정 면으로 통폐합된 결과이기도 하였다.⁶⁾ 해서부면 역시 조선 전기부터 이

어저 왔던 행정 면 구획 과정에서 대구부의 행정 면으로 귀속된 곳 중 하나였다. 해서부면을 포함하여 해동촌면, 해서촌면, 해북촌면 등의 경우, 解顔縣이 대구부 산하로 편제된 결과였다.



〈그림 1〉 해서부면 일대 행정 면 위치

출전 : 『廣輿圖』(규장각 古4790-58)

비고 : 위의 그림 자료는 『광여도』 원본을 해서부면 일대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이며, 그림 자료의 점선 원, 방위표, 한글 표시는 필자가 첨부한 것임.

그런데, 비록 해안현이 해체되어 대구부의 행정 면으로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이전의 문화·사회적 측면이 일부 반영되어 행정 면으로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서부면 일대의 행정 면 명칭 자체가 해서부를 중심에 놓고 方位面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서촌은 해

6) 대구부는 조선 초기 慶州府 산하의 郡이었다. 이후 대구에 鎭이 설치되면서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16세기 중엽 대구부에 하빈현, 수성현, 해안현, 자이소 등이 소속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해은, 앞의 논문, 2016, 7~8쪽).

서부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해서촌이라는 행정 面名이 붙여졌다. 해동촌과 해북촌도 마찬가지로, 해서부를 중심에 두고 행정 면을 구획한 결과였다.⁷⁾ 즉, 해안현을 대구부 산하 행정 면으로 구획할 때 감영이 있었던 도심을 기준으로 구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부의 속현이었던 해안현이 해서부면을 포함하여 4개의 행정 면으로 분할귀속된 배경은 조선후기 안정적인 감영 운영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601년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 감영의 유지를 위해서는 經常費用 마련이 중요하였다. 경상비용 확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시도된 것은 주변의 고을을 대구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신규 편입된 고을의 재원을 대구부 재원으로 이속할 수 있었다. 실제로 경산, 하양, 화원 등은 대구부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가장 먼저 대구부 산하로 귀속된 주변부였다.⁸⁾

해안현의 대구부 귀속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도 해안현은 解顔倉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일대의 환곡이 출납되는 곳이었다.⁹⁾ 즉,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대구부로 귀속되어야 하는 주요한 주변부 중 하나가 해안현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편제 과정에서 해안현은 해서부면을 포함하여 총 4개 면으로 분할되었고, 해안창이 설치되어 있었던 해서부가 중심부 기능을 하였다.

7) 흥미로운 점은 『대구부읍지』에서 해서부면, 해동촌면, 해서촌면, 해북촌면을 모두 “府의 북쪽에 위치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해서부면의 물리적 위치가 도심의 동북쪽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행정 면을 구획할 때는 해당 지역의 연혁을 고려하여 편제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8) 김정운, 앞의 논문, 2023, 61~62쪽.

9) 『대구부읍지』, 「倉庫」, 解顔倉 ; 본 논문 <그림 1> 참고.

<표 1> 18세기 대구부 해서부면 일대 4개 행정 면 호적대장 보존 현황

식년	해서촌면	해북촌면	해서부면	해동촌면
1705	○	○		
1714			○	○
1717			○	○
1720	○	○		
1726				○
1732	○	○		
1735	○			○
1738		○	○	
1741		○	○	
1747	○	○	○	○
1762	○			○
1768	○	○	○	○
1774	○	○	○	○
1777	○			○
1786	○			○
1789	○	○	○	○
1792		○	○	
1795		○	○	○

출전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구부호적 DB.(이하 호적자료 출전 동일)

한편, 대구부가 주변의 군소 군현을 흡수하면서 재정 확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戶口였다. 호구는 戶役과 身役 수취의 근간이었으며, 지방 재원 운영의 主部였다.¹⁰⁾ 특히, 해서부면을 포함한 4개 행정 면의 경우 18세기 호적대장이 현존하고 있어, 당시의 호구 파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세기 全式年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추이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10) 김건태,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호"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249쪽.

<표 2> 18세기 대구부 해서부면 및 그 일대 호구 총수¹¹⁾

식년	해서촌			해북촌			해서부			해동촌		
	戶總	口總	호당 구수	戶總	口總	호당 구수	戶總	口總	호당 구수	戶總	口總	호당 구수
1705	356	1420	3.99	501	2377	4.74						
1714							274	1190	4.34	425	1742	4.10
1717							168	722	4.30	396	1718	4.34
1720	377	1765	4.68	454	2344	5.16						
1726										385	1607	4.17
1732	389	1735	4.46	554	2786	5.03						
1735	316	1339	4.24							335	1419	4.24
1738				512	2328	4.55	268	1081	4.03			
1741				527	2413	4.58	273	1146	4.20			
1747	220	994	4.52	534	2442	4.57	290	1131	3.90	353	1528	4.33
1762	250	1036	4.14							320	1371	4.28
1768	250	1036	4.14	511	2153	4.21	278	1216	4.37	326	1372	4.21
1774	353	1335	3.78	517	2252	4.36	280	1200	4.29	334	1411	4.22
1777	344	1271	3.69							339	1389	4.10
1786	354	1259	3.56							344	1443	4.19
1789	356	1254	3.52	525	2331	4.44	281	1234	4.39	351	1481	4.22
1792				525	2333	4.44	281	1268	4.51			
1795				526	2388	4.54	284	1274	4.49	277	1196	4.32
평균	324.09	1313.09	4.05	516.91	2377	4.60	267.70	1146.2	4.28	348.75	1473.08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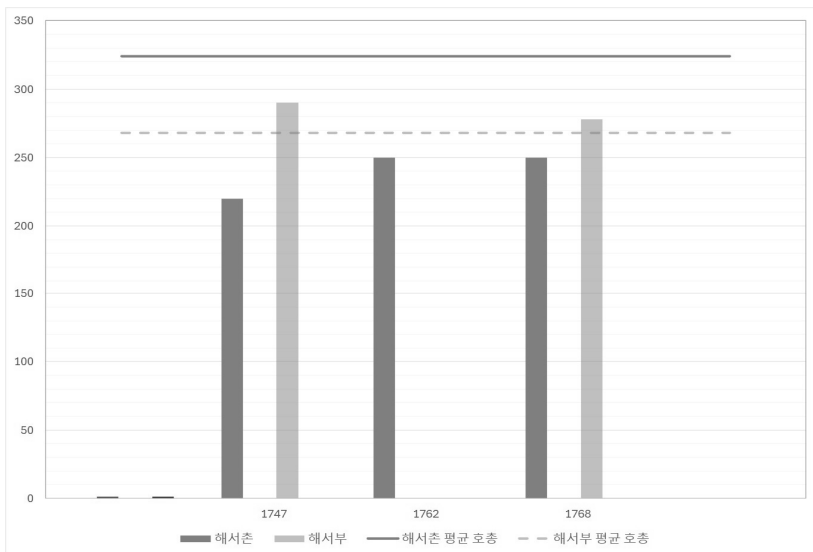
비고 : 평균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먼저, 해서부면의 戶總 추이를 살펴보면, 1717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균 267戶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해북촌면과

11) <표 2> 구충의 산출에서 戶內에 포함되어 있는 奴婢는 배제하였다. 왜냐하면 호역 및 신역의 부담에서 노비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노비가 주호가 되었을 때는 하나의 호로 산출하였는데, 독립된 호는 호역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奴婢戶는 上典戶와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손병규,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과약과 운영 :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의 기재 상황」,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2002). 따라서 독립된 호로 노비 주호가 확인될 때는 하나의 호로 산출하였다.

해동촌면의 경우, 18세기 전체 호총 평균 각각 516호, 348호 수준을 보였다. 두 면 역시 해서부면과 대동소이하게 호총의 평균 수준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해서촌면의 경우 호총이 평균 이하로 연속하여急減하는 식년을 확인할 수 있다. 1747년, 1762년, 1768년 등 3개 식년에서 해서촌면 호총이 평균 이하로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해서부면, 해동촌면, 해북촌면의 호총 추이와 대비되는 양상이었다.



<그림 2> 1747년~1768년 3개 식년의 해서촌면 및 해서부면 호총 추이

비고 : <표 2> 참고, 1762년 해서부면 호적대장 결락.

- 12) 1717년 해서부면, 1720년 해북촌면의 호총이 18세기 전체 평균 대비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호총 낙폭이 크지 않았으며, 곧 평균 수준을 회복하였다. 안타깝게도 해당 식년의 前後 호적대장이 남아 있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이 어렵지만, 본 논문의 주제인 面政과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즉, 당시 면정 상황에 맞춰 일정한 호총 조율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경우는 연속적이지 않으며, 전후 사정 비교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후술하는 내용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2>와 <그림 2>를 종합하면 해서부면 일대의 호구총수 추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1747년, 1762년, 1768년 3개 식년의 해서부면과 해서촌면 호구총수 추이가 상반되었다. 먼저, 해서부면은 1747년 호총이 평균 이상으로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하여, 오히려 해당년의 호당 구수가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눈에 띈다. 즉, 해당 식년 해서부면의 호총과 호당 구수 추이를 연결해 보면, 기타 식년에 비하여 元戶 수는 늘어났으나 상대적으로 호내 구성원을 포함한 원호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호총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반면, 해서촌면의 경우 호총이 평균 이하로 떨어졌던 3개 식년의 호당 구수는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서촌면은 원호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호당 구수는 늘어났던 것이다.

요컨대, 1747년, 1762년, 1768년을 중심으로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의 호구총수 경향이 상반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특정 3개 식년에서 호구총수 경향이 상이하였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식년의 시기적 배경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역중일기』 속 해서부면 일대의 ‘인구’ 변동

앞서 살펴본 3개 식년을 포함하여 18세기 대구부 해서부면 일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료가 존재한다. 바로 경주최씨 문중 崔興遠(1705~1786)이 남긴 『역중일기』이다. 최흥원은 경주최씨 匡靖公派 25세손으로 당시 해서부면 일대 유력한 인물이었다.¹³⁾ 『역중일기』는 당시

13) 당대 최흥원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성과가 참고된다. 정진영, 「부자들의 빈곤2-18세기 중반 영남 한 향촌 양반지주가의 경제생활-」, 『대구사학』 129, 대구사학회, 2017, 5쪽.; 기타 최흥원의 先代 가계 정보 등은 앞의 논문과 더불어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할만 하다. 최인돈, 「백불암의 《부인동동약》과 관련된 향촌 규범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3;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그의 위상을 보여주듯, 해서부면 일대뿐만 아니라 遠距離의 다양한 인물들과 교유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기가 기록된 기간만 따져보아도, 1735년부터 1786년에 이르기까지 50년 이상의 세월을 포괄하고 있어 18세기 해서부면 일대 사정을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사료이다.¹⁴⁾

실제로 최홍원 일가는 曾祖父 때 부터 시작하여 최홍원에 이르기까지 해서부면 일대 호적대장에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래 <표 3>은 17~18세기에 걸쳐 해서부면 일대 호적대장에 최홍원 일가가 등재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17~18세기 최홍원 일가의 호적대장 등재 상황

식년	호적 면명	등재 상황	비고
1684	해서촌면	최경함 호 ¹⁵⁾	홍원 증조부
	해동촌면	최수학 호 ¹⁶⁾	홍원 조부
1714	해동촌면	최정석 호 ¹⁷⁾	홍원 부, 조부 수학 사망
1717	해서부면	최정석호 ¹⁸⁾	해동촌면 → 해서부면 이동, 新戶 등재
1738	해서부면	최홍원 호	1735년 부 정석 사망 ¹⁹⁾
1741	해서부면	최홍원 호	
1747	해서부면	최홍원 호	

사노비의 존재형태, 『古文書研究』 53, 한국고문서학회, 2018 :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본 18세기 혼인풍속」, 『古文書研究』 54, 한국고문서학회, 2019 ; 조경현, 「《역중일기》를 통해본 조선후기의 향약과 마을공동체 운영」, 『영남학』 67, 2018 ; 김정운, 「18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지역과 역사』 44, 부경역사연구소, 2019 : 「18세기 대구 사대부의 일상을 통해 본 가족과 관계-최홍원(1705~1786)의 사례-」, 『대구사학』 147, 대구사학회, 2022 ; 김명자, 「《역중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대구 사족 최홍원의 관계망」,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 이옥, 「최홍원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상제례 운영의 특징」,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 이경진, 「《역중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전염병 유행과 대응 전략」, 『한국인구학』 46, 한국인구학회, 2023.

1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역중일기』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국역은 본원의 출판물을 참고하였다(최홍원, 한국국학진흥원 역, 『역중일기』, 편집부, 2021).

1768	해북촌면	최홍원 호 ²⁰⁾	
		최홍점 호	홍원의 동생, 큰 집 인식의 계자
1774	해북촌면	최홍원 호	
		최사진 호	홍점 아들
1789	해북촌면	최홍 호	홍원 손자
		최사진 호	
		최홍후 호	홍원 동생, 홍원 호의 호내 구성원이었음
		최후진 호	서종제 아들, 홍원 호의 호내 구성원이었음, 신호 등재
1792	해북촌면	최식 호	최홍 개명 최식
		최홍후 호	
		최화진 호	최홍 호의 호내 구성원이었음, 신호 등재
		최사진 호	
		최후진 호	
1795	해북촌면	최식 호	
		최홍후 호	
		최화진 호	
		최사진 호	
		최후진 호	

- 15) 1684년 해서촌면, 智妙里 17통 3호, "新戶 宣敎郎 崔慶涵 年陸拾貳癸亥 移來解東村 本慶州 父成均生員 衛南 祖通德郎行王子師傅 東嶸 曾祖通政大夫行萬頃縣令 誠 外祖 通政大夫行昌原大都護府使X鎮管僉兵馬節制使 李之華..." ; 해당 식년 경함 戶는 원래 해동촌면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 해서촌면 新戶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 16) 1684년 해동촌면, 上洞里 5통 1호, "新戶 業武 崔壽學 年參拾貳 本慶州 父宣敎郎 慶涵 祖成均生員 衛南 曾祖通德郎行王子師傅 東嶸 外祖 通訓大夫行忠州牧使忠州鎮兵馬節制使 李廷機..."
- 17) 1714년 해동촌면, 上洞里 1통 1호,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崔壽學故代子 通德郎 鼎錫 年參拾柒戊午 本慶州 父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壽學 祖宣敎郎 慶涵 曾祖成均生員 衛南 外祖 通德郎 李地標..."
- 18) 1717년 해서부면, 新基里 2통 3호, "新戶 通德郎 崔鼎錫 年肆拾戊午 本慶州 父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壽學 祖宣敎郎 慶涵 曾祖成均生員 衛南 外祖 通德郎 李地標..."
- 19) 『역증일기』 권1, 1735년 7월 16일, “至十六日竟遭變。藥未責效。痛恨窮天。” ; 1717년 해서부면, 九成村里 6통 3호, "通德郎崔鼎錫故代子 興源 年參拾肆乙酉 本慶州

주목할만한 점은 최홍원 일가의 호적 등재와 『역중일기』 기록이 맞물리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홍원은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문중 및 지역 사회의 대소사를 주관하거나 직접적인 참여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최홍원을 둘러싼 주변 인물의 일상 기록 역시 빈번하게 확인 된다. 특히, 상호부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인물의 訃告 및 질병 관련 기록을 세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최홍원은 소유한 노비의 질병 및 사망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사망과 질병 기록은 ‘인구’ 변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요소이다. 호구 파악에 직결되는 ‘인구’ 변동 요인이 『역중일기』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¹⁾

父通德郎 鼎錫 祖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壽學 曾祖宣教郎 慶涵 外祖 成均進士 趙宗山..."

20) 1768년 해북춘면, 中山里 4동 5호, "通德郎 崔興源 年陸拾伍乙酉 本慶州 父通德郎 鼎錫 祖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壽學 曾祖宣教郎 慶涵 外祖 成均進士 趙寶..."

21) 최홍원은 직계 가족 및 근친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였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병환 소식의 범주는 가깝게는 노모에서부터 弟嫂 및 조카, 멀게는 문중, 심지어 이웃의 병증 소식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기에서 확인되는 내용 중 두통 및 복통 등과 같이 病症에 대하여 기록하였거나, 감기, 痢疾, 痘瘡 등 病歷에 대하여 서술한 경우를 ‘질병’ 관련 기록으로 분류하였다. ‘사망’ 기록은 訃告 정보를 선별하여 분류하였다. 질병과 사망 기록은 일기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日日 주기로 추적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적 연구로는 이경진, 앞의 논문, 2023을 참고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의 <표 4>는 해당 연구 88쪽 <표 1>을 바탕으로 질병 및 사망 기록 합계를 추산한 것이다.

<표 4> 『역중일기』 사망 및 질병 기록

단위 : 日

no.	연도	질병	사망	합계	no.	연도	질병	사망	합계
1	1735년	8	2	10	24	1759년	87	23	110
2	1737년	77	16	93	25	1760년	38	7	45
3	1738년	20	8	28	26	1761년	71	27	98
4	1739년	68	28	96	27	1762년	112	23	135
5	1740년	64	28	92	28	1763년	71	23	94
6	1741년	69	35	104	29	1764년	40	27	67
7	1742년	117	41	158	30	1765년	26	16	42
8	1743년	47	27	74	31	1766년	94	29	123
9	1744년	50	22	72	32	1767년	81	21	102
10	1745년	92	28	120	33	1768년	43	17	60
11	1746년	68	29	97	34	1769년	21	33	54
12	1747년	112	20	132	35	1770년	34	20	54
13	1748년	115	20	135	36	1771년	10	4	14
14	1749년	70	19	89	37	1772년	5	9	14
15	1750년	64	11	75	38	1774년	1	3	4
16	1751년	71	10	81	39	1775년	2	3	5
17	1752년	89	34	123	40	1776년	0	5	5
18	1753년	52	20	72	41	1781년	3	1	4
19	1754년	64	23	87	42	1783년	1	0	1
20	1755년	75	31	106	43	1784년	2	0	2
21	1756년	87	43	130	44	1786년	6	8	14
22	1757년	51	20	71	총합계		2,338	836	3,174
23	1758년	60	22	82					

출전 : 『역중일기』(각주 14번 참고)
비고 : 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주 21번 참고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기간에 걸친 일기 내용 중 질병과 사망 기록이 유독 빈번하게 확인되는 시기가 있다. <표 4>의 음영은 『역중일기』에서 질병과 사망 기록이 100회 이상 확인된 연도이다. 예컨대, 두 기록이 총 158회를 기록한 1742년은 연초부터 丈母 및 주변인들의

부고가 연달아 전해진 해이다.²²⁾ 해당 연도는 전국적으로 천연두가 유행하였던 시기로, 중앙정부에서도 전염병 유행의 위기감이 만연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²³⁾ 기타 음영으로 칠해진 시기 역시 해서부면에 도래한 심각한 전염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표 4>의 음영이 칠해진 시기, 즉 질병과 사망 기록이 빈번한 시기와 Ⅱ장에서 확인한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의 호구 총수 경향이 상이하였던 시기가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적대장 작성을 위하여 각 행정 면별 호구 집계는 식년 한 해 전 완료된다.²⁴⁾ 즉, Ⅱ장에서 확인한 1747년, 1762년, 1768년은 해당 연도가 재해 當該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식년의 호적 작성을 위하여 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심각한 질병 및 사망 증가가 발생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1768년 『호적대장』의 경우 해당 식년 호적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호구 조사는 1767년 상반기에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각 家戶 별 戶口單子가 수합된다.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767년의 질병 및 사망 기록은 총 102회 확인되는 해이다. 더 나아가 1766년 질병 및 사망 기록 역시 총 123회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1768년 『호적대장』 작성 시 연속한 질병 및 사망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인구’ 변동 요인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사망과 같은 ‘인구’ 변동 요인은 실제 호구를 파악하는 것에

22) 『역증일기』 1742년 1월 8일, “體泉權進士宅叔母。以是日不淑云。”；1742년 2월 5일, “妻母凶音忽至。痛哭痛哭。初二日戌時變出云。”

23) 이경진, 앞의 논문, 2023, 91쪽.

24) 호적대장의 작성은 식년 한 해 전부터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세기의 경우 보통 식년 1년 전 1월~5월 사이에 가호(家戶)로부터 호적단자가 수합되었다. 이후에는 지방관이 수합된 호구단자를 확인하고, 원호 대상을 추리는 조을 절차 등이 진행되었다. 최종 호적대장 작성까지는 1년에 걸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66~74쪽). 따라서 재해가 연속하여 발생한 이후 작성된 호적대장의 경우, 재해의 상황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원호로 등재할 母集團 자체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1747년, 1762년, 1768년 해서촌면의 호총 하락은 ‘인구’ 변동 요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재해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해서부면에서 ‘인구’ 변동 요인 속에서도 호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서부면은 재해와 같은 ‘인구’ 변동 요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호총을 평균 이상으로 등재할 수 있었을까? 또한,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IV. 재해기간 分戶 증가와 그 영향

가장 먼저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의 차이로 들 수 있는 것은 두 지역의 戶口 구성이다. 1747년 기준으로 두 면의 『호적대장』에 등재된 신분·계층을 크게 3개 계층으로 나누어 호구 구성을 살펴보았다.²⁵⁾

<표 5> 1747년 해서부면 및 해서촌면 원호의 신분·계층 분류

계층 분류	해서부		해서촌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상	100	0.34	24	0.11
중	91	0.31	179	0.81
하	99	0.34	17	0.08
전체 호수	290	1.00	220	1.00

비고 : 비율은 ‘호수/전체 호수’ 수치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5) 본 연구에서 신분·계층 구별은 크게 상·중·하로 분류하였다. 상층은 幼學, 前·現職 官僚, 進士生員出身, 功臣, 通德郎 등을 칭하면서, 妻婦 등 戶에 속한 여성의 호칭이 氏인 경우일 때 해당한다. 여호일 경우 寡婦이거나 본인의 호칭이 氏인 경우를 상층으로 분류하였다. 중층은 業儒, 業武, 忠順衛, 軍役 등을 칭하는 경우일 때에 해당한다. 여호일 경우 寡女, 良女이거나 본인의 호칭이 姓, 召史등인 경우를 중층으로 상정하였다. 하층은 奴·婢를 칭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은 상반되는 신분계층 구조를 보였다. 해서부면의 경우, 상층의 비율이 34%를 보이며 3개 계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해서부면에서는 하층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구조는 상층의 上典戶와 연관되어 있는 奴婢戶가 대거 등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²⁶⁾ 전형적인 班村 우세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실제로 1747년 해서부면에 등재된 하층 호의 경우 전체 99개 호 중에서 73개 호가 主情報를 가지고 있었고,²⁷⁾ 대부분 府內 거주하는 상층 인물들이었다. 즉, 해서부면은 상층 비율이 높은 행정 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²⁸⁾

반면, 해서촌면의 경우 상층의 비율이 11%에 지나지 않았으며, 하층에 해당하는 비율 역시 8%에 불과하였다. 81%에 달하는 해서촌면 호구 대부분은 중층에 해당하는 호였다. 따라서 해서부면과 해서촌면 사이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두 행정 면에 소속되어 있는 호구의 신분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역중일기』를 통하여 해서촌면의 지역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포착된다. 특히, 해서촌면에 포함된 智妙里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26) 손병규, 앞의 논문, 2002 참고.

27) 호적대장에 노비가 등재될 때 良人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가 기재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母情報 및 주인에 대한 정보이다. 특히, 별도의 호를 세울 때 주인 정보가 함께 기재되는데, 주인의 거주 정보, 주인의 직역, 주인의 성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상과 같은 주인의 정보를 본 논문에서는 主情報라고 지칭한다.

28) II장에서 해서부면과 비슷한 호층 추이를 보였던 해동촌면과 해북촌면 역시 상층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두 지역이 해서부면과 대동소이한 호층 추이를 보인 것이다. 1747년 해동촌면과 해북촌면의 신분계층 구조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1747년 해동촌면 및 해북촌면 원호의 신분계층 분류

계층 분류	해동촌		해북촌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상	176	0.50	143	0.27
중	119	0.34	365	0.68
하	58	0.16	26	0.05
전체 호수	353	1.00	534	1.00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다.

(가) 지묘 順金이 반쯤 기른 소를 도로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크게 흉년이 들어서 소를 기를 수 없으므로 도로 돌려준다고 하였다. 인심이 날로 나빠지는 것을 알 만하다.²⁹⁾(밑줄 강조 필자, 이하 동일)

(나) 지묘의 목수가 와서 아뢰었다.³⁰⁾

(다) 지묘의 장정들이 몇 條의 나무를 실어 왔다.³¹⁾

(라) 지묘의 여러 庶族이 모두 와서 왔는데, 내일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³²⁾

(마) 지묘의 庶祖들이 보러 왔다가 곧바로 돌아갔다.³³⁾

(가)~(마)는 일기에서 확인되는 지묘리 관련 내용 중 일부인데, (가)에 등장하는 順金은 지묘리에 거주하면서 최흥원 일가의 심부름을 하는 인물이었다. 또한 (나), (다) 에서도 지묘리로부터 동원되고 있는 일꾼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 (라), (마)는 최흥원 문중의 庶派가 지묘리를 거점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해서촌면은 해서부면과 비교하였을 때 지역적 위상에서 차이가 있었던 곳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위상의 차이는 ‘인구’ 변동 요인에 대응하여 호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도 차이를 불러올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가장 큰 사망 요인이었던 천연두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치사율을 보였던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다.³⁴⁾ 당시 해서부 일대 유력한 사족이었던 최

29) 『역중일기』 1737년 8월 3일.

30) 『역중일기』 1737년 12월 15일.

31) 『역중일기』 1750년 12월 20일.

32) 『역중일기』 1739년 7월 15일.

33) 『역중일기』 1740년 1월 2일.

34) 구범진, 「병자호란과 천연두」,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배대호, 「19세기 전후 사대부가의 감염병 양상과 대처」, 『조선시대사학보』 95,

홍원 일가의 천연두 창궐에 대한 대응은 일반 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홍원 일가 역시 천연두 창궐로 가족 내 어린아이가 천연두에 감염되거나,³⁵⁾ 노약자가 사망하는 일이³⁶⁾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분·계층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여 생존율이 반드시 높다고는 볼 수 없었으며, 재해 상황은 신분·계층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위협이 되었다.

즉, 인구학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재해기간에 호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구 편제 과정에서 일정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 3개 식년의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의 分戶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호는 표현 그대로, 원래 하나의 호였던 것이 두 개 이상으로 나뉘어 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父子分戶, 兄弟分戶를 들 수 있다. 아래 <표 7>은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의 분호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³⁷⁾ 다만, 1762년의 경우, 해서부면 호적대장 원본이 결락되었기 때문에 <표 7>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선시대사학회, 2020 ; 김호, 「정조대의 방역(防疫): 안전과 호혜의 모색」, 『민속학연구』 49, 국립민속박물관, 2021.

35) 『역중일기』 질병 및 사망 기록 중 최홍원 일가의 어린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다음과 같다. 『역중일기』 1746년 4월 2일 ; 1746년 4월 5일 ; 1756년 3월 11일 ; 1759년 4월 6일 ; 1761년 3월 9일 ; 1761년 4월 26일 ; 1762년 2월 4일 ; 1763년 5월 7일 ; 1766년 12월 23일 ; 1767년 1월 26일 ; 1767년 2월 6일 ; 1767년 3월 23일 등 이외 다수.

36) 『역중일기』 질병 및 사망 기록 중 최홍원 일가의 중장년층 및 노인이 천연두에 걸리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다음과 같다. 『역중일기』 1742년 2월 2일 ; 1742년 2월 5일 ; 1757년 1월 28일 ; 1762년 1월 14일 ; 1766년 12월 7일 등 이외 다수.

37) 본 논문에서 실행한 분호(分戶) 추적은 『호적대장』 내 출입(出入) 정보에서 별호(別戶) 기재를 포함하여, 주호의 사조(四祖) 정보를 바탕으로 부자분호와 형제분호를 모두 분석한 것이다.

<표 7> 재해 기간 해서부면 및 해서촌면의 신분·계층별 분호 양상

		1747				1768			
면명	구분	총 호수	분호 수	분호 비율	신분·계층 비율	총 호수	분호 수	분호 비율	신분·계층비율
해서부면	상	100	3	0.030	0.345	147	18	0.122	0.529
	중	91	3	0.033	0.314	93	1	0.011	0.335
	하	99	3	0.030	0.341	38	3	0.079	0.137
	총합	290	9	0.031		278	22	0.079	
해서촌면	상	24	1	0.042	0.109	47	5	0.106	0.188
	중	179	8	0.045	0.814	177	18	0.102	0.708
	하	17	0	0.000	0.077	26	0	0.000	0.104
	총합	220	9	0.041		250	23	0.092	

비고 : 비율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분호비율 = 총 호수/분호 수, 신분계층 비율 = 구분 계층/총 호수

<표 7> 분호 추적 결과에 따르면, 해서부면의 경우 재해 기간 상층에 해당하는 100개의 원호 중 3개 호가 분호로 등재된 호였다. 또한 하층에서 확인되는 3개 분호의 주호 직역이 모두 ‘侍奴東伍’를 칭하는 대상이었는데, 관소속 하층에서 분호하였다는 것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층에서도 3개의 호가 분호로 등재하였다. 1747년 해서부면 신분·계층별 분호 비율은 중층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상층과 하층의 분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편, 전체적으로 1747년 보다 1768년의 분호 양상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66년, 1767년의 연속한 재해의 상황이 더욱 여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⁸⁾ 1768년 해서부면에서 가장 높은 분호율을 보인 것은 상층이었다.

38) 각주 24번 참고. 1766년과 1767년은 『역중일기』에서 질병 및 사망 기록이 각각 123회, 102회를 나타내며, 연속한 재해기간이 이어지고 있었다. 1766년은 연초부터 近親의 부고가 확인되었고, 최홍원 본인도 크게 아팠던 기록이 확인된다. 특히, 1767년은 마을에 퍼진 천연두로 인하여 최홍원 일가 역시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1768년 호적대장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가 1767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권내현, 앞의 논문, 2001, 66쪽), 이후 하반기에 걸쳐 지방 관

12.2%의 비율로, 이전에 비하여 4배 이상의 분호율 증가를 보였다. 하층 분호율 역시 7.9%까지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중층의 분호율은 1.1% 수준을 보였다. 즉, 해서부면에서 재해기간 동안 안정적인 호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상층의 활발한 분호 입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서촌면의 사정은 달랐다. 재해기간 가장 많은 원호를 올렸던 신분계층은 중층이었다. 또한 분호율 역시 상층과 중층에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해서촌면의 하층 호에서는 분호 현상을 전혀 포착할 수 없었다. 1768년 해서촌면에서도 분호율 상승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해서부면과 비교되는 특징적인 요소는 해서촌면의 경우, 안정적인 호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층의 입호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층에서 원호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안정적인 호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층의 입호를 늘리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원호로 등재된다는 것은 담세자 입장에서 수취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구는 국역 수취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8세기 당시 각종 부세는 摠額制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³⁹⁾ 이와 같은 국역 수취 구조에서는 상납할 재원이 중앙으로부터 지방 군현으로 하달되었고, 지방 군현에서는 행정 면리 단위로 수취액을 분배하여 중앙에서 배정한 수취 상납분을 채웠다. 예컨대 『大邱府事例』에서⁴⁰⁾ 각 면리로 할당된 부세가 어떻게 수취 되는지 보여주는 조항이 있다.

書價租 : 每戶 5홉[合]씩을 民斂하여 需用함.

角四面 煙役價 : 매호 牟 1斗씩, 租 1畧 5升씩을 本倉에서 奉상하는 것이 例가 됨.

아에서 원호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연이어 나타난 재해의 상황이 1768년 식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9)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40) 『大邱府事例』(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奎貴12198)

『대구부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구부 산하의 각 행정 면별의 특성과 그에 기반한 부세 분배를 세세하게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행정 면리로 하달된 부세는 戶當 분배되어 부세 총액을 채우게 된다. 위의 서가조 및 각사면 연역가 내용은 『대구부사례』에서 호를 기준으로 수취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수취 구조는 결국 『호적대장』에 등재된 원호가 면별 할당된 상납 재원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원호는 면리별 식리 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⁴¹⁾

분호를 통하여 더 많은 호를 등재한다는 것은 그 만큼 더 많은 부세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재해기간 해서부면 분호 현상과 호총 유지 전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8> 재해 기간 이후 해서부면 및 해서촌면의 신분·계층별 분호 양상

		1774				1789			
면명	구분	총 호수	분호 수	분호 비율	신분·계층비율	총 호수	분호 수	분호 비율	신분·계층비율
해서부면	상	160	9	0.056	0.571	187	12	0.064	0.665
	중	84	4	0.048	0.300	83	0	0.000	0.295
	하	36	1	0.028	0.129	11	0	0.000	0.039
	총합	280	14	0.050		281	12	0.043	
해서촌면	상	134	19	0.142	0.380	126	2	0.016	0.354
	중	190	11	0.058	0.538	218	14	0.064	0.612
	하	29	2	0.069	0.082	12	0	0.000	0.034
	총합	353	32	0.091		356	16	0.045	

비고 : 비율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분호비율 = 총 호수/분호 수, 신분·계층비율 = 구분 계층/총 호수

41) 이경진, 「조선후기 慶尙道 丹城縣 法勿也面의 還摠 분배와 面단위 운영－掾弊錢 운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대사학회, 2019.

한편, 재해 기간 이후 분호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비상시 상황이 종료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재해기간을 걸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주목된다. 바로 신분-계층 비율이다. 원래 상층의 비율이 높았던 해서부면의 경우, 1747년 당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서부면 전체 호총 대비 34.5%였다. 하지만 1789년에 이르자 66.5%까지 상층 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해서촌면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1747년 당시 해서촌면의 상층 호의 비율은 10% 남짓이었다. 그런데 재해기간을 걸친 후 1789년에 이르자 해서촌면의 상층 호 비율은 35.4%까지 상승하게 된다. 1747년 기준으로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층 호가 재해기간에 원호의 부담을 감당하면서 등재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층의 직역인 ‘幼學’은 사실상 함부로 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각 里에서 내력이 분명한 사족 외, 몇대로 幼學이라고 하는 자들은 60~70년 정도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 살핀 뒤, 만약 이 사람이 군보의 자손일 경우에는 몇대로 유학이라고 한 것을 지워버리고 한정으로 치부해 두도록 한다.…⁴²⁾

『목민고』에서는 유학 직역을 검증할 때 호적대장을 바탕으로 60~70년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0년을 1세대라고 산정하면, 적어도 호적대장에 2대~3대에 걸친 선조가 유학을 유지하고 있어야 내력이 분명한 사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직역의 특성 상 先代에 상층 직역을 부여 받았다고 하여 그 직역이 그대로 세습되지 않았다.⁴³⁾ 따라서 부자 및 형제 사이에서도 다양한 신분-계층으로 호적대장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42) 백승철 역, 『신편 목민고』, 해안, 2014, 205쪽.

43) 손병규, 「호적대장의 職役記載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그렇기 때문에 재해기간 원호 확보가 필요할 때 상층으로 입호한다는 것은 담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교적 쉽게 상층 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상층 호의 증가는 재해기간을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 입장에서 상층 직역이 재생산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었다. 상층 직역에는 身役에서 면제받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층 직역으로 호충을 충당하는 것은 신역의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상층의 증가는 지방 사회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신분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충을 잘 보여주는 당시의 분호 관련 기사가 있다.

임금이 漢城判官 李信圭에게 묻기를, “경중의 戶口를 늘릴 방도가 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父子의 호구를 나누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수령이 되어서도 역시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너그러운 법을 써서 너를 죄주지 않지만 너는 나가서 長者에게 물어봄이 옳다.”하였다.⁴⁴⁾

위 인용문은 한성판관 이신규와 영조의 담화이다. 영조가 이신규에게 호구를 늘릴 방도를 묻자, 그가 부자 분호 방법으로 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영조가 크게 불편해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몇 년 후 영조는 ‘分戶 禁令’을 담은 교서를 내리기도 하였다.

지금 關西 淸北의 小科 初試 榜목을 보니 합격한 40인 가운데 조부만 率眷하고 入籍한 자가 한 사람, 아버지만 率眷하고 입적한 자가 네 사람인데 그 중에 나이가 늙은 자는 이상한 일이 아니나 연소한 자도 역시 그러하다. 호구를 나누어 입적하는 것은 곧 금령이다. 아,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호적을 따로 한다면 비록 집을 접하고 담장을 연하여 산다하더라도 昏定晨省을 어떻게 할 것인가?...⁴⁵⁾

44) 『朝鮮王朝實錄』 1762년(영조 38) 5월 16일, “上問漢城判官李信圭曰, “京中戶口可增乎?”對曰“父子分戶, 可以增矣”上曰“汝爲守令 亦將如是乎? 予用寬典, 勿罪汝, 汝出問于長者可也.””

45) 『備邊司謄錄』 146책, 1764년(영조 40) 9월 8일, “今覽關西·淸北小科初試榜目四十人入格中, 只祖率入籍者一人, 父率入籍者四人, 其中年老者, 不是異事, 而年少者亦然,

위 제시문은 1764년 관서 청북의 소과 초시 방목을 확인한 영조가 내린 傳敎이다. 전교의 내용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소과 초시에 합격한 자들 가운데 조부와 아버지 호에만 率丁이 있고 본인만 따로 떨어져 나와 주호로 입호한 자들이 대거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원칙에 어긋나는 분호 입호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호의 방법이 일면 간편하게 호충을 늘리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분호를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함을 왕명으로 전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때 내려진 ‘분호 금령’ 조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되었는데, 지방의 사정상 분호를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⁴⁶⁾

요컨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통념과 규제를 지키고, 현실적 상황에 타협하면서 호충을 채워 나가야 했다. 지방관아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實情에 적용해야 하는 입장으로, 할당된 사회·정치적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편, 民은 국역 수취에 응해야 하는 담세 부담이 있었지만, 때로는 이를 활용하여 신분계층을 재생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어려운 재해기간에 중앙정부—지방관—민호의 역학관계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은 어려웠다. 해서부면에서 18세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호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면의 지역 사정에 맞춰 호충 유지 전략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호충 유지 과정은 중앙정부—지방관아—民의 역학 관계의 연속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대구부가 37개의 행정 면을 거느리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심의 행정 중심의 기능은 그 자체로 두고, 주변부의 面政은 자체적인 사정에 맞춰 운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심의 기능이 확장되어 주변부에 일

分戶入籍, 卽是禁令, 噫, 父子各籍, 雖接屋連牆者, 於定省何…”(밀줄 필자 강조)

46) 『備邊司謄錄』146책, 1764년(영조 40) 9월 12일 참조.

방적으로 이식되기 보다는 개별 행정 면의 유연한 운영이 조화를 이루었고, 이를 보여 줄 수 있는 단편 사례가 대구부 해서부면의 호총 유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 18세기 대구부 해서부면을 중심으로 18세기 안정적인 호총 운영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18세기 대구 해서부면은 도심에서 떨어진 주변부 성격을 갖는 행정 면 중 하나였다. 해서부면은 대구 주변의 속현 중 하나였던 解顔縣이 대구부 행정 면으로 귀속되면서, 해동촌면, 해서촌면, 해북촌면 등으로 분할된 지역이었다. 이처럼 해안현이 해체되어 4개의 행정 면으로 대구부에 귀속되었으나, 이후에도 해서부면을 포함한 4개의 행정 면은 공고한 연계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4개 행정 면의 面名 구성 및 유력 가문의 호적 등재 이동 경로가 4개 행정 면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공고함을 바탕으로 해서부면을 포함한 4개 행정 면의 호구총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18세기 全般에 걸쳐 4개 행정 면의 호구총수는 대체로 평균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해서촌면에서 1747년, 1762년, 1768년에 戶總이 평균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진 시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해서부면 및 주변 행정 면의 호총 추이와 상반되는 경향이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호총 경향이 상반되었던 3개 식년의 경우, 해서부면 일대의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망자가 급증하였던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대 해서부면 일대의 유력한 실력자였던 경주최씨 문중 최홍원의 『역중일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재해기간 해서촌면의 호총이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 해서부면 호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일기와 호적

대장의 교차 검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한편, 인접한 지역이었던 해서부면과 해서촌면에서 재해 기간 발생한 호충 추이의 차이는 해당 지역의 호구 구성에서 비롯되었다. 해서부면의 경우 상층 호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해서촌면은 중층 호의 비율이 높았다. 재해기간 호충 유지를 위하여 일부 호에서 分戶를 통하여 호충을 채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상층 호가 많았던 해서부면에서는 상층에서 분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호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재해 기간 이후 호적대장에서 상층 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즉, 해서부면과 그 주변의 행정 면은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面政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대구부 도심의 행정력 분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단위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략 중 하나였다.

※ 이 논문은 2024년 04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大丘府戶籍大帳』, 『대구부읍지』, 『광여도』, 『역중일기』, 『朝鮮王朝實錄』, 『備邊司
謄錄』, 『大邱府事例』

백승철 역, 『신편 목민교』, 해안, 2014.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구범진, 「병자호란과 천연두」,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9~57쪽.

권기중, 「조선시대 호적대장과 족보를 통해 본 사회사의 재조명 18~19세기 감영소
재지의 인구구성과 향리층의 존재양상 -경상도 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43~66쪽.

권기중, 「조선후기 지방지배정책과 인구피약 -『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사
림』 40, 수선사학회, 2011, 1~22쪽.

권기중, 「호적대장을 통해 본 조선후기 노비층의 증감현상-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
로」, 『대동문화연구』 9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7~34쪽.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63~95쪽.

김건태,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호"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217~261쪽.

김명자, 「《역중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대구 사족 최흥원의 관계망」,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9~38쪽.

김성우, 「조선시대 대구 읍세의 팽창 과정」, 『대구사학』 75, 대구사학회, 2004,
65~98쪽.

김영록,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경상도 邑治의 戶口 구성과 변동-대구·울산·단성
호적대장의 비교」, 『역사와 경계』 96, 부산경남사학회, 2015, 1~31쪽.

김정운, 「18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지역과 역사』 44, 부경역사연구소,
2019, 5~31쪽.

- 김정운, 「18세기 대구 사대부의 일상을 통해 본 가족과 관계-최홍원(1705~1786)의 사례-」, 『대구사학』 147, 대구사학회, 2022, 71~104쪽.
- 김정운, 「경상감영의 설치와 대구의 변화」, 『한국학논집』 9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33~69쪽.
- 김 호, 「정조대의 방역(防疫): 안전과 호혜의 모색」, 『민속학연구』 49, 국립민속박물관, 2021, 5~31쪽.
-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후기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289~308쪽.
- 배대호, 「19세기 전후 사대부가의 감염병 양상과 대처」, 『조선시대사학보』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279~311쪽.
- 손병규, 「호적대장의 職役記載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2~31쪽.
- 손병규,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파악과 운영 :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의 기재 상황」,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2002, 383~417쪽.
- 이경진, 「조선후기 慶尙道 丹城縣 法勿也面의 還摠 분배와 面단위 운영-구폐전 운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대사학회, 2019, 235~262쪽.
- 이경진, 「《역중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전염병 유행과 대응 전략」, 『한국인구학』 46, 한국인구학회, 2023, 83~105쪽.
- 이동규, 「조선후기 호적상 무임직역의 계승과 변동-대구부 읍치와 외촌에 거주하는 몇몇 가계들을 사례로-」, 『대동문화연구』 8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33~64쪽.
- 이유진, 「18세기 대구 호적을 통하여 본 도시지역의 특징 -대구부 서상면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5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1, 1~31쪽.
-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형태」, 『古文書研究』 53, 한국고문서학회, 2018, 97~138쪽.
- 정진영,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본 18세기 혼인풍속」, 『古文書研究』 54, 한국고문서학회, 2019, 233~264쪽.
- 정진영, 「부자들의 빈곤2-18세기 중반 영남 한 향촌 양반지주가의 경제생활-」, 『대구사학』 129, 대구사학회, 2017, 269~308쪽.

- 정해은,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경계』 98, 부산경남사학회, 2016, 1~33쪽.
- 조정현, 「《역중일기》를 통해본 조선후기의 향약과 마을공동체 운영」, 『영남학』 6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239~271쪽.
- 최언돈, 「백불암의 《부인동동약》과 관련된 향촌 규범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145~165쪽.

Abstract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Maintenance of 'HaSeobu-myeon(解西部面)' in
Daegu in the 18th Century**

-Based on the cross-analysis of the family register and the
diary-

Lee, Gyeong-jin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opulations that occurred during the disaster in 'HaSeobu-myon' and 'Haeseochon-myeon', which were adjacent areas of downtown Daegu, originated from the population composition of the area. In the case of 'HaSeobu-myeon', the upper-class population was large, while 'Haeseochon-myeon' had a high proportion of the middle-class popul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number of populations during the disaster, some households played a role in filling the population through the branch, and in HaSeobu-myon, where there were relatively many upper-level households, the population was kept stable as the upper-level population was actively divided. In addition, this phenomenon also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upper-class population in the family register after the disaster period. In other words, 'HaSeobu-myon' and the surrounding administrative aspects were able to stably maintain the Myeonjeong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was one of the strategi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power in downtown Daegu and maintain stability at the regional level.

keywords :

HaSeobu-myeon, *Yeokjungilgi*(『曆中日記』) , Disaster period, the total population, branch house